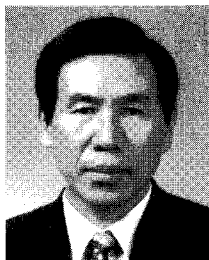


PET용기업계



김 태 길

(사)한국PET용기협회 전무이사

PET용기 업계의 한해를 돌아보며

지난 2002년은 박찬 감격과 어두운 절망이 혼재된 한해였다. 6월의 우리 월드컵 전사들은 프랑스와 이태리를 꺾고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정복하여 세계 4강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친 붉은 악마들의 합성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감격 그 자체였다.

그러나 한편 불행하게도 우리 업계는 성수기인 여름철의 홍수사태와 하반기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음료소비가 크게 신장되지 못한 매우 어려운 한해이기도 하였다.

PET 용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음료수병은 주스류의 소비저조로 예년에 비해 판매물량이 매우 저조한 반면 생수용기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물량면에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또한 채산성면에 있어서도 수요가 증가되지 못하여 공급과잉 상태에서 납품가격이 하락되었고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등 원가 상승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이제 우리는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신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년도의 국내외 경기를 모두가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우리 PET 용기 업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업계는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점이었던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증설을 자제하고, 경쟁력 없는 구형기계는 폐기 또는

해외 매각하는 등 설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용기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선호를 유발시키고 극소형의 용기 등 용량 개발을 통하여 대체 수요와 신규 수요창출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PET 용기의 동남아 시장 수출에도 더욱 주력 해야 한다.

그간 우리 PET 용기 업계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오늘에 와 있다. PET 용기는 가볍고 투명하며 안전하고 재밀봉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위생성 면에서나 환경성 면에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전체용기 시장의 35%를 점할 만큼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음료용기 뿐만 아니라 산업용 포장 용기로서도 영역을 넓히고 있어 우리 생활 주변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용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제조물 책임제도(PL법)가 정착되어짐에 따라 음료용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타소재의 용기에 비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파손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그 수요도 증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업계는 "좋은 품질의 용기, 좋은 모양의 용기, 가격이 저렴한 용기"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부디 올해에도 PET 용기와 관련되는 모든 분들의 배전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 ko